

# 인류학과 재외교포 연구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명예교수 이 광 규

## 1. 인류학과 민족연구

인류학자가 왜 교포연구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사회과학을 조금 아는 사람은 말하기를 재외동포연구는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영역이지 인류학은 좀 먼 학문영역이 아니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소수민족 연구가 인류학의 정통 영역이라면 교포연구는 소수민족 연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류학이 교포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정통이라 생각한다.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자로 교포문제를 취급한 사람들은 학문 영역에서는 심리인류학 영역에서 들어간 사람이 많다. 그것은 교포문제가 소수민족문제이고 소수민족문제는 심리인류학에서 보다 많이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의 영역보다 인류학이 소수민족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고 그 경위는 대략 이러하다. 미국의 소수민족문제가 대두되던 1930년대 미국의 도시에서 야기되는 소수민족문제는 주로 사회학에서 연구하였고 당시 인류학자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연구하여 1930년대 사회학에서 시카고학파가 성립되던 시기 시카고 내의 이태리인 문제, 독일인 문제, 유태인 문제 등을 사회학이 연구하였으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데 무관심하였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가 독립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어느 나라 국민이 되지 않은 원주민은 없다. 원주민은 모두 자기들의 거주지에 건립된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다. 원주민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나 그 나라의 다수민족이 되지 못하고 소수민족이 되었으며, 소수민족이 되니 알게 모르게 다수민족인 지배민족으로부터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심리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인류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한 소수민족의 대변인이 되었고, 아무리 눌러도 소멸되지 않는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소수민족의 정체성 문제는 해외로 이주하여 간 교포들에게서도 볼 수 있으며 해외 이주가 심한 근년의 교포들의 정체성 문제가 인류학의 관심 영역에 들게 된 것이다.

인류학에서 소수민족의 Ethnicity 말하자면 민족성 문제를 처음 다룬 학자는 Boundary Theory로 유명한 Frederik Barth이다. 중동지역의 복잡한 민족들의 관계를 연구한 그는 Ethnicity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게 되는 원초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Barth의 이론을 반대하고 Ethnic Identity란 환경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한 학자가 아프리카의

부족을 연구한 Abner Cohen이다. Ethnic Identity에 대한 쌍벽을 이루는 원초적 성격과 사향적 성격은 오늘날 까지 민족성을 연구하는 기초적인 이론이 된다. Harold Issacs와 Charles Keyes 같은 학자는 민족적 정체성의 원초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Ethnicity의 원초적인 성격을 사회적 조건으로 설명한 Clifford Geertz, Ethnicity를 원초성과 사향성 2면으로 설명한 George De Vos 등이 있다(이광규 저 1997 “민족과 국가” 참조).

Ethnicities, Ethnic Identity 연구영역에 들어서면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의 구별이 서지 않는다. 말하자면 어떤 학문이 이러한 방면의 연구에 주된 영역이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모두 유사한 연구방향들로 나아가게 된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설문지를 중요시하는 사회학적 방법론과 설문지보다 일대일의 면접 조사를 중요시하는 인류학적 방법론을 택하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고 연구 대상을 아프리카나 남미 또는 동남아시아의 사회를 택하느냐 유럽이나 아시아 등 문헌자료가 풍부하고 역사가 긴 민족을 선택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성행한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해를 거듭하면서 세분화하고 심화하더니 1990년대에 들면서는 Nationalism까지 포함하여 Ethnicity와 Nationalism 연구가 유행을 하게 된다. Ethnicity와 Nationalism의 문제는 이민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이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전 인구의 10%에 달한 독일에서도 문제이고, 과거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영국과 불란서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재빨리 이 방면의 연구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면서 “Ethnicities”, “Studies in Ethnicity and Nationalism”, “Nations and Nationalism” 등의 학술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 2. 한국에서의 민족연구

한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교포연구가 시작된 것이 1970년대라 할 수 있다. 당시 인류학에서 Ethnicity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류학에서 학술지에 그리고 단행본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가족과 친족을 연구하던 본인이 Identity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원인에서 이다.

첫째 원인은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다. 그간 가족과 친족을 연구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본질이 무엇이며, 한국문화의 구조적 특색을 설명할 수 있게 되자 그러한 문화를 만든 한국 사람은 어떤 특색을 가졌느냐 하는 문화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의 전이가 이루어질 때 Ethnic에 관한 문제가 인류학계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인류학의 학계 유행을 따라 Ethnic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소수민족을 연구할 외국인 소수민족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화교일 것이다. 1960년 후반 한국에는 6만 명의 화교가 살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이 1960년대부터 시작한 근대화 과정에서 낙오가 되자 3분의 1인 약 2만 명이 대만으로 이주하여 갔고, 3분의 1은 우리 교민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여 갔으며, 한국에는 3분의 1인 약 2만 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 연구를 평생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는 그 수가 적다고 생각하여 해외로 나가 소수민족이 된 한국 교민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1960년대 한국인 교포가 있다면 그것은 주로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이고, 미국으로의 이민은 막 시작되는 정착 초기이었다. 당시 중국이나 옛 소련에 교포가 있어도 그들을 연구할 수는 없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 자주 외국 출장이 있었고 그때마다 교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2년간의 프로젝트로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부라이언 (Foster Brian) 교수가 주동이 되고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데이비드 우(David Wu) 교수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선출된 6명의 인류학자가 모여 2년간 공동연구를 하였다. 제목은 “복수민족 국가에서의 민족접촉에 관한 연구”(Interpersonal Interaction in Pluralistic Societies)였다. 첫째 여름방학 3개월간 이론과 설문지를 다듬고 학기 중에는 설문지 조사를 하였고 다음 여름방학에 다시 모여 설문지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당시 본인은 재일 동포를 갖고 동포들이 일상생활에 접촉하는 사람인 일본인과 교포와의 관계 그리고 교포와 한인들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 일본 오사카(大阪)에 있는 민족학박물관에서 3개월 연구비를 받고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이꾸노구(生野區)에 상주하면서 가정방문을 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출판한 것이 “재일한국인”(1983; 일조각)이었다. 그 후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교환교수로 강의하면서 시간을 내어 애리조나는 물론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14개 도시를 돌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출판한 것이 “재미한국인”(1989; 일조각)이었다.

1990년 다행이 아산재단의 연구비를 받고 서울대 전경수 교수와 같이 구소련의 한인 동포들을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 첫 해에는 모스크바, 세인트페테르부르크, 알마타,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를 방문하여 한인들을 만났고 다음 해에는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등 원동지역의 러시아를 방문하고 저서로 출판한 것이 “재소한국인”(1993; 집문당)이다. 러시아를 드나들며 그리고 한국의 봉사단체와 중국을 출입하면서 수집한 자료로 다음해에 “재중한국인”(1994; 일조각)을 출판하였다.

재일 동포의 연구는 Ethnic Boundary Theory를 적용하여 심한 민족 차별과 편견 속에서 한국 민족이 어떻게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재미한국인을 연구할 때는 동화과정론에 입각한 여러 연구를 분석하고 특히 허원무, 김광정 교수가 주창하는 동화과정

곡선을 비판하면서 미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적응하여 가는 한인들의 적응과정을 연구하였다. CIS의 한인을 연구할 때는 민족환경과 민족의지라는 개념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재중동포를 연구할 때는 민족적 정체성 유지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의식과 중국인이라는 의식 말하자면 2중적 민족의식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결국 4개 나라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한 민족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왜 한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 민족 환경이 어떠한가 그 환경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 내지 동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4개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규명한 것이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인은 역경을 성실로 극복하려는 특이한 민족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도 자녀 교육에 성의를 다한다는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0년간 교포연구에 집중하는 동안 잡지사 언론기관에서 동포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주문이 많이 쇄도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동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회적 요구에 응하느라 재외동포에 관한 많은 잡문을 썼다. 이것을 종합하니 몇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었다. 이것이 “한민족의 세계사적 소명”(1994; 서울대 출판부),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1995; 서울대 출판부) 그리고 “전화기에 선 한민족”(2001; 동북아평화연대) 등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계획한 “한국의 탐구”라는 전집에 “해외동포”(2000; 서울대 출판부)에 관한 저서를 요구하여 다시 한번 재외동포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정년 이후에는 주로 교양서를 출간하였다. 이들을 열거하면 “러시아 연해주주의 한인사회”(1998; 집문당), “Overseas Koreans”(2000; 집문당), “전환기에 선 세계 한민족”(2001; 동북아평화연대), “동북아시아 한민족이 열다”(2001; 백산서당), “세기의 관제: 연해주 물결운동” 2004; 집문당), “동포는 지금”(2005; 집문당), “조국은 지금”(2006; 집문당), “못다이룬 꿈”(2006; 집문당),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2008; 북코리아) 등이고 학술서로는 “신민족주의의 세기”(2006; 서울대 출판부)가 있다.

### 3. 한국에서의 동포연구

다행이 인류학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한 때는 동포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대표적인 분들을 소개하여 보면 전남대 최협 교수가 미국 동포를 연구하여 저서와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고, “세계의 한민족” 10권 중 미국, 캐나다 편을 서술하였으며, 서울대 이문웅 교수가 “세계의 한민족” 중 일본 편을 담당하였으며, 서울대 전경수 교수가 남미 편과 중동, 아프리카 편을, 서울대 이광규 교수가 유럽 편을, 강원대 한경구 교수가 아시아, 태평양 편을 집필하였다.

서울대 인류학과 한상복 교수가 사회학과의 권태환 교수와 같이 재중 동포에 관한 저서를 냈으며, 전경수 교수가 재소한인 외에도 남미의 한인사회, 월남의 한인사회 등 여러 편의 저서와 논문을 냈다. 재미 교포를 연구한 전북대 이정덕 교수, 국제 결혼한 여성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제주대 유철인 교수, 인도의 한인사회를 연구한 전북대 김경학 교수, 재중 한국계 기업인을 연구한 한양대 정종호 교수, 월남 한인을 연구한 시립대 채수홍 교수, 재일동포를 연구한 서울대 권숙인 교수, 재중 동포를 연구한 장정아 박사, 재일 동포를 연구한 한국학중앙 문옥표 교수, 재중 동포를 연구한 서울대 김광역 교수 등이 있다.

인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립박물관의 후원으로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의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보고서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1996년 중국 길림성의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 길림성 연변의 장재촌마을 해란촌마을 - 조사자 김광역, 여중철, 이광규, 김선풍, 왕한석, 정승모

1997년 중국 요녕성의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 중국 요녕성 우가촌 와니전자촌 - 조사자 김광역, 박선용, 왕한석, 유명기, 유철인, 이정덕, 조경만

1998년 중국 흑룡강성의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 흑룡강성 신락촌과 폭포촌 - 조사자 김광역, 장수현, 조강희, 조경만, 주중택, 황익주

1999년 우즈베키스탄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2000년 카자흐스탄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 조사자 전경수, 김양주, 이정덕, 백태현, 이 애리아

2001년 러시아 사할린 연해주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 사할린 블라디미로프카와 유지노사 할린스크, 연해주의 크레모바 - 조사자 김창민, 강정원, 이덕성, 이정재, 성태규

2002년 일본 관서지역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 오사가 이구노구 - 조사자 문옥표, 정병호, 한경구, 유철인, 권숙인, 오지은, 교수들과 박준규, 송기철

2002년 멕시코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 유카탄 반도의 티우아나 - 조사자 김세권, 서성철, 주중택, 권숙인, 문남권 제 교수의 연구자와 권봉철, 송지영

이들 현지조사를 정리하면 1996년에서 2002년까지 8년에 걸쳐 연인원 42명이 동원되어 현지 조사를 행하였으니 인류학계의 중경 학자 전원이 동원되어 재외동포 연구사에 획을 긋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인류학계에서 Ethnicity를 연구한 대표적인 저서가 김광역 편집의 “종족과 민족”(2005; 아카넷)이다. 이 저서에는 김광역이 서론을 집필하고, 피지의 민족성을 다룬 이태주, 나이지리아의 요루바 왕국을 다룬 한건수, 인도의 시크교도를 다룬 김경학,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을 다룬 강정원, 멕시코를 다룬 김세권, 일본을 다룬 권숙인, 홍콩을 다룬 장정아, 북아일랜드를 다룬 황익주, 미국의 인종주의를 다룬 이정덕, 말레이시아를 다룬 오명석 등의 글이 있다.

동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인류학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 동포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도 고조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남대학의 세계 한상문화연구단이다. 임채완 교수의 지도하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2003년에서 3년간 학술진흥재단의 후원금으로 47명의 교수와 200여 명의 보조원과 설문조사자 등을 동원하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3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출판하여 동포 연구 학계에 크나 큰 공헌을 하였다.

#### 4. 재외동포재단

노무현 정권 시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외무부 관료가 아니라 사계의 연구가를 영입한다는 기본 방침의 전환으로 예상을 뒤엎고 본인이 재외동포재단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1998년 서울대학교를 정년으로 퇴임하고 연해주 한인을 돕는 NGO인 “동북아평화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재외동포를 장기간 연구한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

1998년에서 2003년까지, 말하자면 대학 정년에서 이사장 취임까지 5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하는 이른바 고려인을 도왔고, 한국에서 사기피해를 본 중국 조선족을 도왔으며, 북한에서 탈출하여 연변에 숨어살거나 위협하면서도 고생을 하는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였다. 말하자면 재외동포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였던 것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는 동포 사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은 한인회장 대회를 주도하여야 하고, 한상대회를 추진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교육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민족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연수회를 하여야 했다. 특히 한상대회는 세계 분산된 수백 명의 동포 기업인이 참가하기에 이들의 사업을 돕는 일이며 이들 상호간에 네트워킹을 하는 일 그리고 이들과 한국의 기업인을 알선하는 일 등 크고 중요한 일이 많았다. 특히 한상에 참가하는 리더 시이오는 대단한 재력가로 이들과의 교분을 두터이 하여야 하는 것이 이사장의 임무였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 이외에도 문인들, 교육자들, 기술자들 수 없이 많은 영역의 동포들이 재단을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여 주고 힘든 사정도 하소연하는 등 각계각층의 동포를 대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돕는 일을 하여야 했다.

재외동포 이사장은 해외 출장도 많아 월 평균 1회 해외 출장을 갔다, 중요한 한인들의 행사에 초청을 받아 모임에 가서 격려의 말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남미,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크고 중요한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모임을 갖게 한 것이고, 입양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과 재미동포 2세들의 네트워킹을 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되기 전에 동포 사회의 하층에 속하는 사람, 동포 사회에서 하층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교포사회의 상류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경력은 나의 동포연구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 기회가 된 것이다.

## 5. 재외동포의 과제

미국을 위시하여 재외동포 사회가 큰 전환기에 이르러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1세가 1.5세 2세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전환기에 있고, 일본은 2세가 3세로 사업이 이양되는 과도기에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리적인 인구 이동이 심한 시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문제도 많지만 연구할 영역도 많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대표적인 사안을 본다면 대략 이러하다.

CIS 지역에 55만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나 불가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연해주로 이주하여 오는 이른바 고려인은 난민이 되어 새로운 정착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정착문제는 중국인, 일본인들의 연해주 진출과 같이 뒤섞이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곳의 문제를 영향권을 확대하는 영토전쟁이라는 표현을 써 보았다. 말하자면 연해주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영토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의 문제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한국으로 몰려와 고생을 하는 동포들의 문제가 있다. 한국 바람이 불어 수 만 명의 중국 동포가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 고생을 하였고 특히 한인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고생을 많이 하였다.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에 문의하리만큼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갖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최근 해외 한인들이 있는 곳은 없는 곳이 없으리만큼 해외진출이 많아 이들이 현지에 적응하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일본의 교포는 일본인들의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붕괴와 이에 따르는 민족교육의 문제가 있다. 조총련계 민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어는 잘 구사하지만 교육의 내용이 북한 것이어서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을 배출하였다. 이제 조총련 민족학교가 경영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참다운 제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을 생각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재미동포들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세에서 2세로의 사업이 이양되는 전환기에 있어 문제가 되지만 이것보다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SAT II에 한국어가 추가된 이후 연방정부는 계속하여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계와 일본계 사람들은 미국 중·고등학교에 자기들의 언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문화전쟁이라고 표현하여 보았다. 한국계는 이러한 문화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 사회에는 학문에 필요한 연구도 많고 동포 사회에 필요한 문제가 많다. 재외동포 문제는 동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포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매력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